

임신·출산 관련 어휘 연구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홍기옥**

|| 차례 ||

1. 서론
2. 연구 방법
3. 임신·출산 과정에 관련된 어휘
4. 출산 후 행위 및 의식에 관련된 어휘
5. 신생아·임산부 관련 어휘
6.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경상도 지역의 ‘임신·출산’에 관한 어휘를 조사하고 이에 관한 어휘목록을 체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도의 여러 제보자를 통해 임신·출산 주제에 대한 다양한 어휘 수집하여, 임신·출산에 관한 어휘를 목록화하였다. 여기서는 임신·출산 과정에 관련된 어휘, 출산 후 행위 및 의식에 관련된 어휘, 기타 신생아·임산부 관련 어휘를 정리하였다.

인류의 시작과 함께 시작된 임신·출산의 문제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와 관련된 말과 표현도 많이 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출산 문화의 변화로 임신·출산에 관한 전통적인 생활 어휘도 노년층을 중심으로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사라져 가고 있는 임신·출산에 관한 전통적인 생활 어휘를 조사, 정리하는 일은 필요하며 의미있는 작업일 것이다.

* 이 연구는 2007년도부터 진행되어 온 국립국어원 생활어 조사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에 수행된 임신·출산에 관한 『2009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5』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다.

**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국립국어원 생활어 조사에서 경상남도 지역을 담당하는 연구원이다.

주제어 : 어휘, 전통 어휘, 임신, 출산, 의식, 신생아, 임신부

1. 서론

본 연구는 경상도 지역의 ‘임신·출산’에 관련된 어휘를 체계적으로 조사,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 봉화, 영양, 대구 지역과 경상남도 함안, 의령, 부산 지역을 대상으로 주제에 관련된 어휘를 범주별로 정리하여 임신·출산에 관련된 어휘를 목록화하고자 한다.

사람은 누구나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 한 평생을 살다가 죽는다. 모두 각각의 삶을 살지만 태어나고 죽는 것은 모두에게 공통된 일이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음에까지 겪게 되는 일을 민속학에서는 일생의례라 한다. 그 일생의례의 시작은 부모의 기자를 포함하는 임신, 출산이다. 이러한 임신·출산의 문제는 인류의 시작과 함께 인류의 존속, 민족의 존속을 위해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누구에게 배워 습득한 것이 아니라 본능처럼 체득한 지식인 것이다. 이처럼 임신·출산의 문제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있어 왔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어휘도 많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출산문화의 변화로 이와 관련된 어휘가 노년층 중심으로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임신·출산에 관한 전통적인 생활 어휘를 정리하였다.

1) 임신·출산에 관한 생활어 조사에서는 임신·출산 과정, 출산 후 행위 및 의식, 신생아와 임신부에 관한 기타 어휘를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임신·

1) 임신·출산에 관한 어휘 조사는 본래 ‘임신을 위한 기자의례, 임신·출산 준비물, 임신·출산 관련 금기, 임신·출산 관련 속설’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임신·출산 과정, 출산 후 행위 및 의식, 신생아와 임신부에 관한 기타 어휘’ 부분만을 다루어 정리하였다.

출산'에 관한 어휘목록을 체계화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연구 방법

2009년 5월 29일부터 시작된 조사는 크게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5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임신·출산에 관한 문헌 조사를 진행하여 여기서 조사된 어휘를 항목별로 분류해 목록화한 후 질문지를 제작하였다. 본격적인 현장조사는 이 질문지를 바탕으로 2009년 7월 18일부터 시작하여 2009년 11월 26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자료 정리 후 보충조사는 2010년 2월 28일까지 하였다.

조사는 녹음기와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하여 조사하였으며 조사 방법은 조사 대상자와 밀착하여 직접 조사하는 민족지적(ethnography) 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²⁾ 민족지적 조사 방법은 경험적이고 질적인 조사 방법론으로, 일정한 질문지를 만들어 질문지 안의 내용만을 조사하던 방법과는 달리 제보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심층적인 면담 과정에서 조사자가 융통성을 발휘하는 조사 방식이다. 이 방법을 통해 질문지의 내용을 제보자에게 물어보는 과정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하위 분류의 어휘도 수집할 수 있었으며 제보자들의 생생한 삶이 묻어난 어휘도 수집할 수 있었다. 현장조사 후 미비한 부분의 보충을 위해 보충조사도 실시하였다.

2) 'ethnography'라는 단어는 학자에 따라서 민족지학(民族誌學), 민속지(民俗誌), 문화기술학(文化記述學), 문화기술지(文化記述誌)라고 번역되기도 한다. 이는 인류학 분야에서 현지조사 시 참여관찰의 방법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조사 방법으로 심층적인 면담, 친밀관계(rapport) 형성, 정확한 보고 등을 요구하는 현장 조사 방법이다. 이 방법을 언어학의 방언조사에 접목하여 이용함으로써 기존의 질문지를 이용한 방식보다는 주제에 관련한 다양한 관련 어휘를 수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민족지적 조사 방법을 이용하여 조사 작업을 진행하였다.

경상도에서의 임신·출산에 관한 어휘 조사를 위해 경상북도(영양, 봉화, 대구) 4명, 경상남도(함안, 의령, 부산) 4명의 주제보자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³⁾ 제보자들은 모두 출산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사람을 선정하였는데 그 중 2명은 어계 조려 집안의 종부로 제보자들을 통해 반가와 민가의 임신·출산 풍속에 관해서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경상도 지역의 임신·출산에 관한 어휘뿐 아니라 이 지역 방언의 특징도 알아볼 수 있었다.

〈표 1〉 제보자

이름	나이	지역	기타
조설좌	80	경남 함안 군북면	어계 조려 종부, 함안에서 태어나 결혼, 슬하 1남
이점이	71	경남 함안 군북면	어계 조려 작은집, 함안에서 태어나 결혼, 슬하 2남
한정순	72	경남 의령 공류면	의령에서 태어나 결혼, 슬하 3남 2녀
최정희	61	부산 남구 대연동	부산에서 태어나 결혼, 슬하 2남
금경량	81	경북 봉화 몰아면	봉화에서 태어나 결혼, 슬하 5남 3녀
이용순	82	경북 영양 영양읍	안동에서 태어나 영양으로 시집, 슬하 1남
금경자	67	대구 동구 신천동	봉화에서 태어나 영양으로 시집, 현재 대구 거주, 슬하 2남 2녀
이점옥	61	대구 서구 평리동	군위에서 태어나 영천으로 시집, 현재 대구 거주, 슬하 1남 2녀

조사 내용은 임신·출산 과정, 출산 후 행위 및 의식, 기타 항목으로 신생아 관련 어휘, 임신부 관련 어휘 조사 등의 범주로 나누고, 그에 해당하는 하위 항목을 조사하였다.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조사의 기점으로서는 조사자의 고향인 경상북도 대구와 조사자의 주 생활지인 경상남도 부산을 먼저 설정하고, 이후 이 지역과 어휘형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지역적 거리가 있는 함안과 봉화를 정하였다. 이는 같은 행정구역 내에서도 사용 어휘의 차이를 보기 위함이었다. 추가 지역으로는 함안과 봉화 접경 지역인 의령과 영양을 정하여 조사하였다.

〈표 2〉 조사 내용

구 분	조사 내용
임신·출산 과정에 관련된 어휘	임신 관련 과정(임신, 입덧, 태몽), 출산 관련 과정
출산 후 행위 및 의식에 관련된 어휘	산모 관련 행위(산후 조리, 젖 관리), 신생아 관련 행위(삼일부정, 배속에 똥 누이기), 금줄치기, 태 처리 하기, 배꼽 관리 하기, 출산 후 의식
신생아·임산부 관련 어휘	신생아 관련 어휘(호칭, 신체 관련 어휘), 임산부 관련 어휘

지금까지 임신·출산에 관한 연구는 민속학과 문화인류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국어학적으로 접근한 연구는 많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국립국어원의 지역어 조사 사업에서는 ‘육아’에 관련된 어휘에서 ‘입덧, 갓난아이, 아우타다, 계집아이, 사내아이, 쌍둥이, 기저귀, 포대기’ 등 8개 항목이 임신·출산에 관한 어휘로 나타나고 있다.⁴⁾ 또한 정신문화연구원에서 발간한 『한국방언자료집 VII, VIII』 경상남·북도 지역편을 보면 ‘육아’에 관련된 범주에서 ‘갓난아이, 돌, 어린애, 여자아이, 남자아이, 기저귀, 포대기’ 등 7개 항목이 조사되어 있고, ‘인체’ 관련 범주에서 ‘배꼽’ 어휘가 조사되어 있다.⁵⁾

그러므로 이번 연구를 통해 임신·출산에 관련되는 어휘를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각각의 항목에서 제시한 예문은 제보자의 발화에서 해당 어휘가 들어있는 부분은 가져온 것이다. 그리고 조사에서 경상남도과 경상북도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어휘가 많았는데 특히 임신·출산 과정에 관련된 어휘에서는 공통된 부분이 많이 있었다. 경상남·북도의 어휘를 비교하여 차이가 나는 어휘는 항목별로 밝혀두었다.

4) 국립국어원(2006), 『지역어 조사 질문지』, 334-351쪽 참조.

5)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3), 『한국방언자료집VIII』, 89-128쪽 참조.

3. 임신·출산 과정에 관련된 어휘

임신·출산의 과정에 관련된 어휘는 임신 과정에 관한 것과 출산 과정에 관련된 것을 나누어 정리하였다. 임신 관련 과정에 관한 어휘는 임신, 입덧, 태몽 등으로 하위 분류를 하였으며, 출산 관련 과정은 아기가 나올 기미를 보이는 단계에서 아기가 나오고, 탯줄 끊고, 태가 나오는 등 출산의 단계별로 정리하였다.

1) 임신 관련 과정

산모가 임신을 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산모는 입덧을 하고 태아에 관련된 꿈을 일부나 가족이 꾸기도 한다.

(1) 임신

배 속에 아이를 가지는 것을 ‘임신’이라 한다. 임신 하는 것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아 서다, 아 배다, 얼라 들다, 얼라 가지다, 애기 가지다’ 등으로 표현하였다. 아이를 ‘아, 얼라, 애기’ 등 경상도 방언형을 사용하였고 이는 ‘배다, 가지다, 서다’ 등의 어휘와 연어 형식으로 붙여 사용하였다. 다음은 ‘임신하다’를 의미하는 어휘의 사용 예이다.

①

- ㄱ. 저기 큰 {아 설} 때는 태몽 꾀봤지.<함안>
- ㄴ. 그때는 아들인가 딸인가 알았나. 첫. {첫아 뻐는데}.<함안>
- ㄷ. 뭐 {얼라 들 때} 되가지고 뭐 초상집 음식이나.<경북>
- ㄹ. 다른 음식 뭐 {얼라 가져도} 별로 가래는 게 없어.<경북>
- ㅁ. 그 태중 교인이 무섭다 카거든. {애기가지고}.<경북>
- ㅂ. {가질라고} 어떤 기로 할꼬.<의령>

(2) 입덧툼(입덧)

임신을 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입덧을 하는데 ‘입덧’은 임신 초기에 입맛이 떨어지고 구역질이 나는 증세를 말한다. 입덧하는 것을 경상도에서는 ‘입덧하다, 입덧툼하다, 입맛 그친다, 입 놓다, 입 그친다’라고 말한다. ‘입덧툼’은 ‘입덧’의 경상북도 방언이며 입덧을 하면 입맛이 없어지므로 ‘그치다’라는 어휘와 함께 사용하고 있다. ‘입덧, 입맛, 입’과 ‘하다, 그치다, 놓다’라는 어휘가 연어 형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경상남도에서는 ‘입덧, 입덧하다’라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사용하였으며, 경상북도에서는 ‘입덧툼, 입덧, 입맛, 입’ 등의 어휘와 ‘하다, 그치다, 놓다’류와 연어 형식으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경상남도	입덧 + 하다	경상북도	입덧, 입덧툼, 입맛, 입 + 하다, 그치다, 놓다
------	---------	------	---------------------------------

다음은 ‘입덧하다’류 어휘의 사용 예이다.

②

- ㄱ. 임신해도 {입덧 할} 때 되면 묵고 지픈 것도 없이 나.<의령>
- ㄴ. {입덧툼, 입맛, 입맛 그친다} 칸 이도 있고
{입덧툼} 하는 그게 그 말이야. 땡 같은 말이야.<경북>
- ㄷ. 입. {입 났다}. {입그친다}. 그카지.<경북>

(3) 태몽

태몽은 아이를 뱌 것이라고 알려 주는 꿈이다. 임신을 하면 산모가 직접 태몽을 꾸거나 주변 가족이 꿈을 대신해 꾸기도 한다. 또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이 좋은 꿈을 꾸었을 때 임신을 원하는 사람이 그 꿈을 태몽으로 사기도 한다. 어떤 태몽을 꾸었는지에 따라 태아의 성별을 점치기도 하는데 이는 아들 태몽과 딸 태몽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뱀꿈은 대부분 아들 태몽이 많은데 뱀꿈 중에서도 크고, 긴 것이 아들 태몽이고, 작은 뱀꿈은 딸 태몽이라고 한다. 용꿈, 호랑이 태몽은 대체로 아들 태몽이라고 하고, 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한다. 붉은 색 열매를 보면 아들 태몽이고, 초록색이나 덜 익은 열매를 보면 딸 태몽이라 한다. 다슬기를 잡거나 작은 고기를 잡거나 머루 꿈은 딸 태몽이라 생각하였는데 같은 대상을 보더라도 크고 잘 익었으면 아들이라 생각했고, 작고 덜 익었으면 딸이라 생각했다. 다음은 ‘태몽’에 관련된 어휘 사용의 예이다.

③

- ㄱ. {태몽, 태몽꿈 꾸다} 카지.<의령>
- ㄴ. 아를 그래 낳았으니 {태몽꿈} 마카 췌겠지만. 나는 {태몽꿈을} 다 췌는데 첫째 태몽꿈은 그렇게 영글어.<경북>
- ㄷ. {호랑이 꿈꾸는} 사람도 있고<경북>
- ㄹ. {밤 꿈을} 꾸면 딸이라<경북>
- ㅁ. {홍초는 아들이고 청초는 딸이라고} 그카지.<경북>
- ㅂ. 산에 가서 {멀구름} 한다래끼 따가왔다.<경북>
- ㅅ. {뱀이가} 하얀 뱀이가 신다리로 요 이래 물더레이.<경북>

(4) 기타

(가) 나는 아(움직임이 많은 아이)

‘나는 아’는 의령의 제보자가 한 말로 엄마 뱃속에서 움직임이 많은 아이를 말한다. 임신 5개월 정도가 되면 엄마는 태아가 뱃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이것을 ‘아이가 놀다’라고 표현한다. 그런데 엄마 뱃속에서 기운 세계 놀면서 움직임이 많은 아이가 있는 반면에 많이 움직이지 않거나 움직이더라도 노는 힘이 약한 아이가 있다. 움직임이 많은 아이를 ‘나는 아’라고 한다. 아들인 경우에 힘 있게, 활발하게 노는 경우가 많다고 하나 아이의 성향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한다. 간혹 잘 노는 아이가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거나 움직임이 약하면 산모는 아이 건강을 걱정하는데 아이가 배속에서 노는 것을 보고 태아의 건강상태를 측정하기도 한다.

경상남도	나는 아	경상북도	대응어휘 없음
------	------	------	---------

- ④ {나는 아가} 있고 조금 조용한 아가 있제. 마이 움직이는 아가 있고 좀 덜 움직이는 아가 있고 그렇지.<의령>

(나) 터울 늘어지다

한 어머니의 먼저 낳은 아이와 다음에 낳은 아이와의 나이 차이를 ‘터울’이라 한다.

이 터울이 큰 경우를 ‘터울이 늘어지다’라고 표현한다. ‘먼저 낳은 아이와 다음에 낳은 아이와의 나이 차이가 크다’라는 의미이다.

⑤

ㄱ. 두 살 {터울}. 시 살 터울.<의령>

ㄴ. 많이 아이 {터울이 좀 너무 늘어졌지}<함안>.

(다) 아시보다, 아시타다

‘아시보다’는 ‘동생이 생기다’라는 뜻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강원, 경남의 방언이라 하고 있으나 경북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아시’는 ‘아우’의 방언(경남, 전남, 제주)형으로 ‘아시/아우/아새+보다, 타다’형으로 사용한다. ‘아시/아새 타다’는 동생이 생기거나 생길 것 같으면 형은 평소와 다르게 행동 하는데 평소와 달리 엄마에게 많이 의지를 하거나 행동이 퇴화되거나 자기 생식기 쪽, 자기 아래쪽을 들여다보는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형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 동생의 성별도 점칠 수 있는데 머리에 자꾸 무엇을 이고 다니면 딸이고, 목에 무엇을 걸고 다니면 아들이라고 한다.

⑥

ㄱ. {아새탄다} 어떤 아들은 이래 었드려 가지고 이룬데 보이끼네.

<경복>

ㄴ. 맞어. 저저 {아시본다}. 어. 그래. 밑에 보이끼네 저저 지

{아시본다} 이래데. 아시불라고 그러이.<경복>

2) 출산 관련 과정

임신 후 열 달이 지나면 일련의 출산 과정을 거쳐 아이를 낳게 된다. 여기서는 출산하는 과정에 대해 분류해 보았다.

(1) 이슬비치다

여자의 월경이나 해산 전에 조금 나오는 누르스름한 물을 ‘이슬’이라 하고 이것이 나오는 것을 ‘이슬 비치다’라고 이야기한다. 대부분의 산모는 출산 전에 이슬이 비치고 이를 보고 출산이 임박함을 알았다. 또 이슬의 색깔로 태아의 성별을 점치기도 하였다. 다음은 그와 관련된 사용 예이다.

⑦

ㄱ. 근데 인제 땡 아가 나올하면 {이슬이 비치잖아}.<경복>

ㄴ. 한 삼일 전에 이슬 비취가지고 그제 {이슬이가 붉으믄 아들이고 흰 건 딸이라} 한 이도 있고.<경복>

ㄷ. {이슬은 조금 비채지}. 그렇게 마이 없어.<경복>

(2) 아가 빠치다

출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태아도 엄마 뱃속에서 나오려고 준비를 한다. 태아의 머리가 점점 밑으로 내려와 산모 골반으로 들어오면 서서히 골반이 벌어지는 등 일련의 출산 과정이 진행된다. 이렇게 태아가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나오려고 준비를 하는 것을 ‘빠치다, 뺨치다’라고 한다. 그런데 태아가 태어나려고 준비하는 것에 비해 골반이 늦게 열리는 등 출산 진행 과정이 더디게 진행되면 아이가 빠치는 시간이 길어져 아이도, 산모도 고생을 한다.

⑧ 하도 {아가 마이 빠졌잖아}. 삼일을 아풍게 죽겠더라<경북>

(3) 머리받이 터지다

아기가 나올 때는 먼저 ‘양수’가 터진다. 양수는 양막 안의 액체로 태아를 보호하며 출산할 때는 흘러나와 분만을 쉽게 한다. 이 양수를 경상도에서는 ‘머리받잇물, 머리받이, 물병’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양수가 터지면 미끌미끌한 물이 흘러 나와 아이가 나오기도 수월하다. 양수가 터지는 것을 ‘양수 터지다, 머리받이 터지다, 머리 터지다, 물병 터지다’ 등으로 표현하였다. 이는 ‘양수, 머리받잇물, 머리받이, 물병’이 ‘터지다’라는 어휘와 연어 형식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다음은 관련 예이다.

⑨

- ㄱ. 아 나올 때 {머리받잇물}이 물병에 따로 있잖아. 그게 터져야 인자 아 나오면 수운데. 얹이 나오는 아가 있어.<경북>
- ㄴ. 그 요새. 요새말로 {양수터졌다} 카는.<의령, 함안>
- ㄷ. 그래 터지. 참 {머리 받이} {머리 그래 터졌어}. 그래 터지고 그거 {머리 받잇물이라} 카데.<경북>
- ㄹ. 그게 {물병이 터져야} 애기가 나와.<경북>

(4) 앓들다, 앓들다

‘트다, 틀다’라는 말은 출산 과정에서 출산의 시작을 알리는 말로 ‘아기가 태어나려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

‘트다, 틀다’라는 어휘는 있으나 이와 같은 의미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보통 ‘애 트다/ 틀다, 허리 트다/ 틀다, 배 트다/ 틀다’ 등의 연어 형식으로 사용한다. 이 ‘트다/ 틀다’라는 말은 아이가 엄마의 산도를 내려올 때 머리 부분이 먼저 내려오면서 쉽게 내려오려고 몸을 회전시키면서 내려오는데 그 행동에서 기인된 말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아이가 산도를 내려올 때 산모의 배 부분이 특히 통증이 심한 것을 ‘배 트다/ 틀다’라고 하고 허리의 통증이 크면 ‘허리 트다/ 허리 틀다’라고 하고 산모 다리가 심하게 아프면 ‘다리 트다, 틀다’라고 말한다. 다음은 관련 예이다.

⑩

- ㄱ. 그기. {애 트는} 거보다 더 아프다. 엄청시리 아파.<의령>
- ㄴ. {배를 뒀다}. 배.<의령>
- ㄷ. {허리 트는} 모양이래. 아 비치면 {아 튼다} 카저든.<경북>
- ㄹ. 그래 배가 아프면 인제 {배로 트고 허리 아프면 허리로 트는}.<경북>
- ㅁ. 배도 아프고 {다리로 트는} 것도 죽을 지경이데이.<경북>

(5) 아 놓다, 아 받다, 아 나오다

출산 시 아이가 엄마 배 속에서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을 ‘아 놓다, 아 나오다’라고 표현한다. ‘아 받다’는 출산을 도와주는 산파가 배 밖으로 나온 아이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예전에는 동네에서 아이 받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거나 가족이 아이를 많이 받았다.

아이를 낳을 때 산도를 부드럽게 하여 아이가 잘 나오게 하는 양수가 터지는데 양수가 다른 아이에 비해 많지 않은 아이를 ‘깁아, 마른아’라고 한다. 경남에서는 양수가 별로 없는 아이를 ‘마른아’라고 하는데 경북에서는 ‘깁아’라고 표현한다. ‘깁아, 마른아’에 반대되는 말은 없었다.

경상남도	마른아	경상북도	깁아
------	-----	------	----

⑪

- ㄱ. 이 탯줄 끊을라고. 딱 준비해놓고. 그래 인자 {넣는다}.<의령>
- ㄴ. 씨를 뭐 안 터웠는. {아를 못 놓는} 그 이름이 있잖아.<경북>
- ㄷ. 근데 인제 맹 {아가 나올하면} 이슬이 비치잖아.<경북>
- ㄹ. {아를 받아서} 인자 탯줄 끊어가지고 물로 뜨사놔다가<함안>
- ㅁ. 아기를 그러자면 말하자면 디기 {마른아를 넣는다} 이기제.<의령>
- ㅂ. 그래 외숙이 낳 때 {깁아를 낳어}. 양수 안 터지고.<경북>

(6) 탯줄 끊다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아이의 탯줄을 끊는다. 탯줄은 가운데를 중심으로 탯줄에 고인 피를 아이 쪽으로 훑어 넣은 다음 어른 한 뼘 정도 되는 길이를 남겨두고 잘랐다고 한다. 따라서 ‘탯줄 끊기’는 산모와 아기를 연결한 줄인 탯줄을 가위나 낫 등을 이용해 자르고 자른 부위에 피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 실로 묶는 행위를 말한다. 탯줄은 일반적으로 끊인 물로 소독한 가위로 자르는데 ‘귀한 자식은 연장 대 안 끊는다’는 속설이 있듯이 가위나 낫을 이용하지 않고 아이 아버지가 이로 끊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탯줄을 제보자들은 ‘태’, ‘이승가는 거’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관련 어휘로 ‘탯줄/이승가는 거, 끊다, 짜매다/재매다’ 등의 어휘가 있다. 다음은 관련된 예이다.

⑫

- ㄱ. {탯줄은 실로가 인자 딱 짜매서}.
- 그러고 가위 갖고 {탯줄로 끊고}.<의령>
- ㄴ. 가위는 대충 {끊을라} 그러고. 실꾸리는 대충 {끊고나모} 그 피 안나오 구로 {재맬라고} 그래 인제 준비하고.<경북>
- ㄷ. {태. 저 이승 가는 거}? 이승 가는 거는 가위가지고 끊는 사람도 있고 머스마들 낫 가지고 {끊는} 사람도 있고.<경북>

ㄹ. 옛날에 {탯줄} {남자가 이로 마카 끊어준 이도 있다}<경복>

(7) 태 나오다

아이를 출산하고 조금 후 엄마 자궁 속에 있던 태가 나온다. ‘태’는 태반이나 탯줄과 같이 태아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조직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로 태가 깨끗하게 잘 나와야지 산모의 자궁이 예전처럼 건강한 상태로 회복될 수 있다. 나온 태는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처리하였는데 이는 출산 후 행위와 의식 관련 내용에서 다루기로 한다.

⑬

ㄱ. {태는 인자 가있다가 태 그튼 거 나오지}.<경복>

ㄴ. 태. {태나오잖아}.<의령>

(8) 목욕시키다

아기가 나오면 목욕을 시킨다. 목욕을 시키는 것도 일정한 순서가 있었는데 아이의 손과 발에 물을 먼저 묻혀 아이가 놀라지 않게 한 후 코 부분을 씻기고 얼굴 전체를 씻긴다. 그런 다음 위에서 아래로 몸 전체를 씻긴다고 한다. 신생아의 목욕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시킨다. 다음은 그와 관련된 예이다.

⑭ 아를 받아서 인자 인자 탯줄 끊어가지고 물로 뜨사냈다가 {목욕 시키고}<의령>

(9) 훗배 아프다

훗배가 아픈 것은 산모가 해산을 한 뒤 배가 아픈 것을 말한다. 훗배가 아픈 것은 출산한 산모의 자궁이 원래의 크기, 자리로 되돌아가려는 자궁

수축 작용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훗배앓이는 아기를 낳은 산모들이 아기 낳는 것만큼 힘든 일인데 특히 양수가 많지 않은 아이인 갱아, 마른아를 낳은 산모는 훗배앓이가 심하다. 또 아이 출산 경험이 많을수록 심해진다고 한다.

- ⑮ 이 훗배가 이 피몽티기가 배를 통해서로 엄청나게 아프다. 그기. 애 트는 거보다 더 아프다. 엄청시리 아파.<의령>

이상의 임신·출산 과정에 관한 어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3〉 임신·출산 과정에 관련된 어휘

구 분		조사 항목		
임신 관련 과정	임신	얼라 들다, 아 배다, 아 서다		
	입덧	입덧하다, 입 그치다, 입 놓다, 입맛 그치다, 입덧틈하다		
	태몽	아들 태몽	홍초는 아들 청초는 딸, 하얀 뱀 꿈, 호랑이 꿈, 용 꿈 등	
		딸 태몽	고디(다슬기) 잡다, 미꾸라지 잡다, 자잔한 고기 잡다, 밤, 멸구(머루) 등	
	기타	나는 아, 터울 늘어지다, 아시보다, 아시타다		
출산 관련 과정	1) 아가 빠치다, 배 아프다			
	2) 이슬비치다, 이슬 비채다			
	3) 머리받이 터지다, 머리받인물 터지다, 머리 터지다, 물병 터지다, 양수 터지다			
	4) 애 틀다, 아 틀다, 배 틀다, 허리 틀다			
	5) 아 놓다, 아를 받다, 아 나오다, 마른아 놓다, 갱아 놓다			
	6) 탯줄 끊다, 실로 짜매다			
	7) 태 나오다			
	8) 목욕시키다			
	9) 훗배 아프다			

4. 출산 후 행위 및 의식에 관련된 어휘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임신과 출산 관련 행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

산 후에도 산모나 태아에게 건강상 필요한 행위가 있었으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출산 의식이 행해졌다. 산모에게는 아이를 낳는 것만큼 산후 조리가 필요했으며,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신생아 관련 행위도 있었다.

출산 후 행위 및 의식에 관한 조사에서는 산모 관련 행위(산후 조리, 젖 관리)와 신생아 관련 행위, 금줄 치기, 태 처리 하기, 배꼽 관리 하기, 출산 후 의식 등으로 하위 범주를 나누고 관련 어휘를 정리하였다.

1) 산모 관련 행위

출산 후 행위 중 산모 관련 행위로는 산후 조리와 젖 관리가 있다.

(1) 산후조리

산모에게는 아이를 낳는 것만큼 산후조리도 중요하였으며 산후조리는 음식을 먹는 것과 편히 쉬는 것이 있었다. 하지만 산후조리도 사내아이를 낳는지 딸을 낳는지에 차이가 있었으며 제대로 몸 관리를 하지 못 했을 경우는 이후에 큰 고생을 한다고 믿었다. 그리고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 해 생긴 병은 다시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여야 낫는다고 한다.

(가) 산후조리하다, 바라지하다

‘산후조리’란 산모가 출산 후 건강이 회복되도록 몸을 보살피는 것을 말한다. 임산부는 산후조리를 잘 해야 예전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 예전에는 출산 후 칠일 정도 산모는 임신, 출산을 하면서 피로한 몸을 푹 쉬었는데 바쁜 철에는 사나흘 정도가 지나면 간단한 집안일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남아를 출산하였는지, 여아를 출산하였는지에 따라 산후조리

기간도 조금 달랐다고 한다. 남아선호사상의 영향으로 아들을 낳으면 산후 조리 기간이 딸을 낳은 것보다 길어진다는 의미이다. 아들을 낳으면 일곱 칠 동안 산후조리를 하고 딸을 낳으면 삼칠일동안 산후조리를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산후조리를 잘 못하여 몸이 불편하거나 병이 생긴 경우에는 한 번 더 출산을 하고 다시 산후조리를 잘 해야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였다. ‘산후조리’라는 말과 함께 ‘조리, 몸조리’라는 어휘도 산후조리를 대신해 사용하고 있었다. ‘바라지 하다’는 산모가 산후조리를 잘 하도록 옆에서 산모를 돕거나 신생아를 돌보는 행위를 말한다. 다음은 관련 예문이다.

⑬

- ㄱ. {조리가} 뭐고, 밥도 못 얻어 무따.<함안>
- ㄴ. 애들도 {몸조리를} 잘 해야 돼. 뭐 바쁘다고 뭐 그쵸 참 뭐 저 바라지 할 사람이 없으면 손수 나가가지고 해먹고 이카모 병 지고 난다카이끼네. 몸이 안 개운하지.<경북>
- ㄷ. {산후조리는} 올케 되구록 했나. 어데.<의령>
- ㄹ. 삼칠 안하고 일곱칠 했다고. {아들 놓면은 일곱칠 하고 딸은 놓면 삼칠 일}.<의령>

(나) 국밥, 미역국

산후조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산모가 마음 편히 쉬는 일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먹는 음식에도 신경을 썼다. 산모는 영양가 많은 음식을 먹어 쇠약해진 기력을 보충하는 일고 중요한 일이었다. 산모는 출산을 하자마자 미역국과 밥을 먹었다고 한다. 산모의 바라지를 도와주는 사람은 미역과 쌀을 준비해두었다가 출산을 하면 바로 국밥을 준비해 산모에게 주었다. 하지만 예전에 가난한 시절에는 이마저도 얻어먹지 못한 산모가 많았다고 한다. 산모가 먹는 미역국과 밥을 국밥이라 하기도 한다.

⑪

- ㄱ. 쌀하고 미역하고는 인자 고 낳기 전에 꼭 준비해 놔야 돼. 준비해놔다가
애기를 낳으면 저 {국밥을} 미역을 끓이야 되거든.<의령, 경북>
ㄴ. {미역국이} 뭐꼬. 죽도 몬 얻어묵지.<경남, 경북>

(다) 몸에 끼가 있다, 삼칠 비치다

산모가 아이를 낳고 나면 자궁이 수축을 하면서 일정 기간 조금씩 피가
비친다. 이를 ‘몸에 끼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증상은 삼칠(21일) 정도
있으면 없어진다. 그래서 ‘삼칠 비치다’라는 말을 한다. 다음은 그 사용 예
이다.

- ⑫ {몸에 끼가 있어도} 그냥 뭐 애기 놓고 나모 삼칠 거 비치거든. 이리
거 새도 참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함안>

(라) 바람 불다, 바람에 좋다

‘바람’은 산후풍을 이르는 말로 아이를 낳은 뒤에 한기(寒氣)가 들어 떨
고 식은땀을 흘리며 앓는 병을 말한다. 조사 지역에 모두 산후풍을 앓는
것을 ‘바람 들다’라고 표현한다. 바람에 좋은 것은 뜨거운 음식을 먹고, 몸
을 따뜻하게 하는 것인데 산후조리를 할 때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⑬

- ㄱ. 낳고 {바람에 좋다}.<경북>
ㄴ. {바람 불어가 죽는데}. 뭐.<경북>

(마) 연물 나오다

연물이 나오는 것은 아기를 낳고 자궁의 일부가 밖으로 빠지는 것을 말
하는데 연물이 빠지면 질 안에 있어야 할 부분이 생식기 밖으로 보이는

젖을 말한다. 이도 산후조리를 잘못 하였을 경우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한다. 다음은 그 사용 예이다.

㉔ 그게 {연물이 나와가} 그래. 연물이 나와 그래.<경북>

(2) 젖 관리

(가) 젖 돌다, 젖줄 열래다, 젖이 나오다, 젖이 나다

출산 후 3일 정도가 지나면 산모가 젖이 나기 시작한다. 출산 후 3일이 지나고 바로 나는 젖은 ‘초유’라고 하는데 이는 색이 노랗고 영양이 풍부해 아이에게 반드시 먹여서 아이의 면역력을 높여야 한다. 산모가 젖이 나기 시작하면 ‘젖 돌다, 젖줄 열래다, 젖이 나오다, 젖이 나다’라고 표현한다. 이 표현은 경상남북도 차이가 없는 표현이다. 다음은 그 사용 예이다.

㉕

ㄱ. 애기 놓고 나면 {젖 돌아}.<의령>

ㄴ. 미역국하고 밥 잘 먹으면 {젖이 젤 잘 나지}.<경북>

ㄷ. 옛날에는 삼일 되야 이 {젖이 돌아} 나오니깐 그 {젖이 돌아} 나오면 그때 그 맴간 거는 고마 이래 짜내고 자꾸 비배가지고 그게 젖이. {젖줄 이 열래면은} 그러면은 모두. 뛰고.<경북>

(나) 젖이 많다, 젖이 흔하다, 젖이 적다, 젖이 모지라다, 젖이 없다, 젖 떨어지다

산모에 따라서 젖의 양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젖이 부족한 사람도 있다. 젖의 양이 많은 것을 ‘젖이 많다, 젖이 흔하다’라고 표현하고, 젖양이 아이에게 먹일 만큼, 아이가 필요로 하는 만큼 충분하지 않을 경우를 ‘젖이 적다, 젖이 모지라다’라고 표현한다.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 젖은 계속 나오는데 엄마가 동생을 임신하면 젖이 줄어든다. 아이에게 젖을 빨리지 않으면

젓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데 이를 ‘젓이 없다, 젓이 떨어지다’라고 한다. 이는 경상도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다. 다음은 그 예이다.

②

- ㄱ. 미역국하고 밥하고 이러면 {젓이 많아}.<경북>
- ㄴ. 지동상이 떨어져. 드가. 들어서야 떨어지거든. 젓이. 그럼 지 얘기가 생기면 {젓이 없다} 아이가. 안 난다 아이가.<의령>
- ㄷ. 젓은 나는 {젓은 모지래} 보진 안했어. 다 젓이 좋아.<의령>
- ㄹ. 젓은 참젓인데. 참젓이고 {젓도 혼헌데} 다 짜고 다. 다 흘러 내빼리고. 아는 아 대로 굶고. 허허. 명지바지를 입었다.<경북>

(다) 젓이 좋다, 유젓이 좋다

산모의 젓양도 충분하고 색깔도 우윳빛처럼 뽀얀 것을 ‘젓이 좋다, 유젓이 좋다’라는 말을 한다. 이는 영양분이 많고 좋은 젓이 충분하다는 의미이다.

③

- ㄱ. {젓 좋은. 유젓이 좋다} 이커지 뭐라카꼬.<의령>
- ㄴ. 젓은 나는 {젓은 모지래} 보진 안했어. 다 젓이 좋아.<의령>

(라) 참젓, 무젓, 물젓, 우문젓

‘참젓’은 영양분이 많아서 아기에게 좋은 젓을 뜻하는 말이다. 이에 반대되는 말로 ‘무젓, 물젓’이 있다. 이는 농도가 묽어서 영양이 적은 젓을 말한다.

젓꼭지 모양에 따라 ‘우문젓’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는 젓의 한가운데가 도드라져 나오지 않고 쭉 들어간 젓으로 ‘함몰유두’를 말한다. 아이에게 젓을 물리려면 젓꼭지가 밖으로 도드라져 나와 있어야 수월한데 젓꼭지가 안으로 들어간 우문젓의 경우는 아기에게 젓 먹이기가 힘들어 산모는 젓고생이 심하다. 우문젓으로 아이에게 젓을 먹이려면 아이의 아버지가 자주 젓을 빨아 젓꼭지를 밖으로 빼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한다. 우문젓과 같은

의미로 ‘구술젖, 구실젖’이라는 어휘를 쓰기도 한다. 또 수유기에는 가슴 부분의 통증이 생기는데 이를 ‘젓몸살, 젓고생’이라 한다.

경상남도	젓몸살, 참젓, 무젓, 물젓, 구술젓	경상북도	젓고생, 젓몸살, 참젓, 물젓, 우문젓, 구술젓, 구실젓
------	----------------------	------	---------------------------------

②4

- ㄱ. {물젓이라고 카고}. 젓이 보양고 큰 거 그건 {참젓이라 카데}.<경북>
 ㄴ. 그래 그렇게 아파가지고 그래 낳는데 젓이 그저 {젓꼭지가 올망져} 가지고 그거 때문에 올케 누워 있지도 못하고.<경북>
 ㄷ. {우문젓이라}. 젓꼭지 있어야 빨지. 이래 움푹하이.<경북>
 ㄹ. {젓고생. 젓고생}. 이 형님도 젓 가지고 고생했는 사람.<경북>

(마) 돼지 족발, 가물치

산모가 영양분이 많은 음식을 먹어야 젓이 많이 나온다. 젓을 풍부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돼지 족발’이 있는데 돼지족발을 물에 푹 고아서 곰국처럼 먹으면 젓이 많이 난다고 한다. 이 외에 가물치를 삶은 물을 먹기도 하고 막걸리를 마시기도 했다고 한다. 막걸리는 색깔이 젓처럼 뿌연 색이라 젓을 많이 나게 하는 음식이라 생각한다고 한다.

②5

- ㄱ. 그 뭐 안 나오면 {돼지 족발도} 꼬아서 먹고. 부연 거 이런 거 있잖아요.<경북>
 ㄴ. 아까 뭐 {가물치} 말하면서. 가물치도 먹고.<경북>

(바) 우유갈기(우유가루)

엄마의 젓이 모자라거나 엄마가 젓을 먹이기 힘든 상황이면 아이에게 ‘우유갈기’를 대신 먹였는데 이는 ‘우유가루, 분유’를 말한다.

②6

ㄱ. 그걸 우유. {우유갈기라} 하믄.<경북>

ㄴ. {우유가루} 안 줬나. 썬묵고 그래 그랬는데.<경북>

2) 신생아 관련 행위

출산 후 신생아 관련 행위로는 삼일부정에 관한 행위와 태변을 누이는 것이 있다.

(1) 삼일 부정

아이가 태어나면 3일 동안은 연약한 아이가 건강을 잃거나 죽는 따위의 부정한 일이 많이 생기는데 이를 이르는 말이 ‘삼일 부정’이다. 이 기간 동안은 산모는 물론 가족들도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데 상갓집이나 제사에 가지 않는 것은 물론 제사 음식이나 상갓집 음식도 먹지 않았다. 아이가 태어나서 바깥 세상에 적응하기 위한 3일 간 부정한 일이 많이 생길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아이가 태어나면 목욕을 시키는데 첫 목욕을 하고 나서 3일이 지난 후에 다시 목욕을 시켰다고 한다. 그리고 첫 목욕 후에는 포대기에만 싸두었다가 3일이 지난 후 아이에게 처음으로 배냇저고리를 입힌다고 한다. 이는 아이가 태어나서 3일 동안은 아이가 세상에 없는 것처럼 해서 귀신이나 나쁜 기운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다음은 그와 관련된 예이다.

②7

ㄱ. 아가 나고는. {삼일부정이} 거기 젤 무서운 거야.<경북>

ㄴ. 삼일. 삼일을 저게 뭐야. 어데 나쁜데 갔다 와도 안 되고 어데 초상집 그튼데 갔다오면은. 부정 타가지고. 애 먹는다.<경북>

ㄷ. 그냥 요래 두대개 싸서 뇌뒀다가 {삼일}만에 씻개 가지고 그래 이란저

고리 했어. 꼭 삼일만이라야 그거 옷을 입혔어.<경북>

(2) 배속에 똥 누이기

출산 후 3일 간은 산모에게 젖이 나지 않는데 이 기간 동안은 아이에게 물을 조금씩만 먹였다고 한다. 그렇게 하면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생긴 시커먼 똥을 누게 되는데 이를 ‘태변’이라 하거나 ‘뱃속에 똥’이라 한다. 3일이 지나고 아이가 젖을 먹으면 노란 똥을 누다고 한다. 다음은 그와 관련된 예이다.

㉘

ㄱ. {뱃속에 똥이라고} 놓습니다. 시커먼.<경북>

ㄴ. 우째 울어사면 {물이나 조개 떠먹이고}.<의령>

3) 금줄 치기

아이가 태어나면 연약한 아이가 세상에 잘 적응을 하게 가족들은 신경을 많이 쓰는데 대표적인 것이 금줄 치기이다. 금줄을 치면 이웃에게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을 알리는 것과 함께 당분간 아이가 태어난 집에 방문하는 것을 금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금줄 치기에 관한 조사는 금줄의 명칭과 남녀에 따른 금줄의 종류와 금줄의 처리에 관해 정리하였다.

(1) 금줄 명칭

금줄은 부정한 것의 침범이나 접근을 막기 위하여 문이나 길 어귀에 건너질러 매거나 신성한 대상물에 매는 새끼줄로 아이를 낳았을 때, 장 담글 때, 잡병을 쫓고자 할 때, 신성 영역을 나타내고자 할 때에 사용한다. 이 줄이 있는 곳은 사람이 함부로 드나들지 못 한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금줄

을 치는 것도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여 나쁜 기운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려는 목적이다.

금줄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불렀는데 경북에서는 ‘금석, 금석줄, 금색’이라고도 하였고, 경남 함안에서는 ‘금구, 금구줄’이라 하였다.

경상남도	금구, 금구줄	경상북도	금석, 금석줄, 금색
------	---------	------	-------------

㉔

- ㄱ. {금구줄}. 응. 애기 낳음 금구줄이라 한다. 금구줄.<의령>
- ㄴ. 그래 가다보면 그 집에 {금줄} 쳐놔으면 아유 저 집에 아들 났네. 저 집에 딸 났네. 이. 이래 대번 남이 알잖아.<경북>
- ㄷ. 우리는 {금구} 그런 거 안쳤어.<함안>
- ㄹ. {금석. 금석줄}.<경북>
- ㅁ. {금색 천다} 그런다.<경북>

(2) 금줄 종류

아들인지 딸인지에 따라서 금줄에 끼우는 물건이 달랐다. 공통적인 것은 아들은 ‘고추’를 끼우고, 딸은 ‘숯’을 끼웠다는 점인데 그 나머지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랐다. 아들 금줄에는 ‘숯, 꼬치(고추), 미역, 돌’ 등을 끼웠다고 하고 딸 금줄에는 ‘손갑, 솔잎’ 등을 끼웠다고 한다. 재료를 새끼줄에 끼우는 것은 ‘찌우다’, ‘짚구다’라는 어휘를 사용하였다.

경상남도	숯, 꼬치, 미역, 실구리, 짚가다	경상북도	꼬치, 수깅, 손갑, 돌, 솔잎, 찌우다
------	---------------------	------	------------------------

㉕

- ㄱ. 우리 고향에서는 아들 놓으마 마카 {꼬치} 찌우고 {수깅} 찌우고 {손갑} 을 안 찌우고. 딸 놓으면은 꼬치 안 {찌우고} 손갑 {찌우고} 수깅 {찌우고} 이래도 난 그거 백엔 몬 봤어.<경북>

- 나. 아들 낳았을 때는 {숫하고 꼬치하고 미역하고} 그래.<의령>
- 다. {실구리} 찜가고, 그래 아들 그라고, 딸은 인제 고마 {미역하고 꼬치하고}.<의령>
- 르. {돌도 찌우는데 솔잎하고 꼬추하고가 달라}.<경북>

(3) 금줄 처리

아이의 출산과 함께 집 앞에 걸어둔 금줄은 일주일, 칠일이 지나면 걷는다.

- ㉪ 일주일 지나면 {칠일 지나면 걷어낸다} 아이가.<의령>

4) 태 처리 하기

아이가 엄마 배 속에서 나오고 나면 자궁 속에 있던 태반이 나오는데 이를 ‘태’라 한다. 태는 함부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를 하였다. 태가 나오면 7일 동안 보관했다가 버리는데 보관은 덩기(등겨의 경상방언)나 짚에 묻어 두었다고 한다. 칠일이 지나면 물에 갖다 버리거나 불에 태우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물에 갖다 버린 태는 주워서 약으로 썼다는 얘기도 있다. 불에 태울 경우는 햇불을 놓고 태우거나 벽고래이(아궁이의 경북방언)에 집어넣어 태웠다고 한다. 다음은 그와 관련된 사용 예이다.

- ㉫
- ㄱ. {일주일 지나면 칠일 지나면 걷어낸다} 아이가.<의령>
- 나. 어데 {물에 그런데 갖다 여뵈다} 카데.<의령>
- 다. {불 안 때니께 뭐 강에 갖다 떠우는} 사람도 있고.<경북>
- 르. 동촌 {강에 마이 갖다 내비래고}.<경북>
- ㅁ. {햇불놓는기래, 어떤 사람은 벽고래이 쥐 여뵈다}.<경북>
- ㅂ. {아궁지에 낭그로 불 열잖아}.<경북>
- ㅅ. 태. {저 이승 가는 거}?<경북>

5) 배꼽 관리 하기

태어나자마자 아이의 탯줄을 자른 자리는 두 칠(14일)에서 삼 칠(21일)이 되면 배꼽이 여물어서 배꼽이 생기는데 제보자들은 ‘배꼽, 뱃총’이라 하였다. 배꼽을 잘못 처리하면 배꼽 부근에 염증이 생기거나 배꼽 모양이 이쁘지 않게 되므로 배꼽에 물이 들어 가지 않고, 염증이 생기지 않게 신경을 많이 쓴다. 배꼽이 여물지 않았는데 배꼽을 잡아 당기면 배꼽이 툭 튀어나 오게 되는데 이런 배꼽을 ‘오지배꼽’이라 한다. 배꼽 처리를 잘못하면 미운 배꼽을 가지고 평생 살아야 하기 때문에 배꼽을 당기거나 탯줄 처리한 부분이 뽕뽕하게 놓이지 않도록 신경을 썼다.

경상남도	뱃총, 배꼽	경상북도	배꼽, 오지배꼽
------	--------	------	----------

③③

- ㄱ. 아들은 한 보름 여믄끼네 떨어지고, {뱃총이라} 그랬다.<의령>
- ㄴ. 병 묵는 매로 {바삭하이} 그렇데. 버릿뿌따.<의령>
- ㄷ. {배꼽이} 삼칠 가야 완전히 나올 걸.<경북>
- ㄹ. 배꼽을 여게 잘 없애놔야 되지. 배꼽을 {뽕뽕하게 놓던가. 뽕겨게 놓던가}. 배꼽이 이쁘게 안놔져.<경북>
- ㅁ. 어데 뭐 {오지배꼽이라} 하던가 뭐뭐 뽕. 배꼽이라.<경북>

6) 출산 후 의식

아이를 출산하고 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아이의 탄생에 관한 여러 종류의 의식을 치른다. 이런 성장 단계별 의식을 치르는 것은 아이가 건강히 성장하는 것에 대한 축하의 의미와 건강을 기원, 그리고 수고를 다해 기른 부모의 노고를 기리는 의미도 있다.

(1) 삼날, 초칠, 두칠, 삼칠

우리나라에서는 출산 후 의식 중 칠일에 해당되는 날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출산 후 이래째 되는 첫 칠일인 ‘초칠’, 두 번째 칠일을 ‘두칠’이라 하였으며, 세 번째를 ‘삼칠’이라 하여 초칠, 두칠, 삼칠까지는 삼신판을 차려서 삼신께 아이의 건강을 기원하였다. 삼칠 뿐 아니라 일곱칠까지 챙겨서 일정한 의식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한다. 출산 후 칠일 때마다 삼신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였고 아기의 건강을 기원한 것이다. 아이가 태어나서 삼일째 되는 날을 ‘삼날’이라 하는데 이 삼날에도 삼신을 위한 삼신판을 새벽에 차리고 삼신께 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빌었다.

③4

- ㄱ. {삼일}. 삼일 째. {삼날이라} 그래.<경북>
- ㄴ. {삼 지킨 사람은} 찬물 떠놓고.<경북>
- ㄷ. 응. {초칠} {이칠} {삼칠} 다 해. 다 그래 물. 미역국 끓여놓고 밥해놓고 국 떠놓고.<경북>
- ㄹ. 미역은 옛날에는 큰 대각 있었거든. 칠. 칠. 다가도록 {일곱칠} 다가도록 그거로 끓이묵고.<의령>
- ㅁ. {삼신판에} 상 채려가 놓고. {삼칠} 지내 {삼칠날} 아침<경북>
- ㅂ. 삼신할마님 우에든동 저 어린 걸 그저 보살펴 주시고 명주고 복주고 아무 허물없이 잘 {보살펴 달라고} 이래.<경북>

(2) 백일

아이가 태어나서 백일째 되는 날을 ‘백일’이라 하는데 이날도 삼신께 삼신상을 차리는데 흰시루떡과 수수떡을 하였다. 아기의 백일에 흰시루떡을 백 명이상 나눠먹으면 아기에게 좋다고 하고, 수수떡을 해 먹으면 나쁜 기운으로부터 아기를 보호할 수 있다고 한다. 또 아이들의 백일, 돌에는 ‘바람떡’을 먹었는데 바람떡은 만두처럼 생겼으나 속에 소를 넣지 않은 떡으로

속이 빈 떡을 만들어 먹은 이유는 속이 비어있는 바람떡을 먹으면 아기가 육심을 부리지 않고 비어있는 마음으로 깨끗하게 산다고 믿어서였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바람떡’은 ‘개피떡’의 강원방언이라 수록되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바람떡과는 의미 차이가 있다. 바람떡은 만두처럼 생겼다고 해서 망두떡(만두떡)이라 하기도 한다.

③⑤

- ㄱ. 백일. {백일}날도 {백일이라고} 그때도 인제 떡 해놓고.<함안>
- ㄴ. 백일엔 {수수떡} 해가지고 백편하고 수구떡 하고 해가지고.<경북>
- ㄷ. 그거 인제 돌. 백일에는 {망두떡}.<경북>
- ㄹ. 속에는 소가 한 개도 없고 병그러이니깐 거 이름이 바람떡이라. 바람떡.<경북>

(3) 돌

아이가 태어나서 첫 번째 맞는 생일을 ‘돌’이라 한다. 돌이 되면 이전에 치뤘던 의식보다는 큰 잔치를 하는데 이를 ‘돌잔치’라 한다. 돌잔치는 아이가 일 년 동안 별 탈 없이 자란 것에 대한 축하와 부모가 잘 키운 것에 대해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였다. 그리고 여러 친지들을 모셔 아이가 잘 크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리이기도 했다. 돌잔치에서는 돌잡이를 하였는데 아이 앞에 ‘연필, 붓, 책, 실타래’ 등을 올려놓고 아이에게 잡게 한 뒤 아이의 운명을 점치기도 하였다. 실을 잡으면 명이 길고 연필, 붓, 책을 잡으면 학자가 된다고 한다. 다음은 그와 관련된 사용 예이다.

③⑥

- ㄱ. {돌 잔치} 할 때. 그래 실타래를 놓고. 그래 아로 가 집어라 카마 뭐 가가지고 {연필이나 붓이나 지른 공부 잘한다 카고 또 실글은 거 지면 명 지다 카고} 그랬다.<경북>

ㄴ. 뭉 {연필도 놓고 뭉. 붓. 옛날에 도 붓도 놓고} 뭉.<경북>

이상의 출산 후 행위 및 의식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출산 후 행위 및 의식에 관련된 어휘

구 분	조사 항목	
산모 관련 행위	산후 조리	• 산후조리, 조리, 몸조리, 조리하다, 바라지하다 • 아들 농면은 일곱칠, 딸 농면 삼칠일 • 병지다, 바람들다, 바람분다 • 국밥, 미역국 • 몸에 끼가 있다, 삼칠 비치다 • 바람 들다, 바람에 좋다, 연물 나오다
	젖 관리	• 젖 돌다, 젖줄이 열래다, 노라이 젖이 나오다, 젖 물리다, • 젖 모자라다, 젖이 없다, 젖이 흔하다, 젖이 좋다, 유젖이 좋다, • 젖 떨어지다, 젖 비배다 • 참젖, 무젖, 물젖, 우문젖 • 멸경다, 보양다 • 가물치, 족발, 잉어 • 우유갈기
신생아 관련 행위		• 삼일부정, 삼일만에 옷 입히기, 삼일만에 씻개다 • 물 조개 떠 먹이다, 태변 누이기, 뱃속에 똥 누이기
금줄 치기	명칭	금구줄, 금구, 금줄, 금석, 금석줄, 금색천다, 쟁구다, 찌우다
	종류	아들 금줄(숯, 꼬치, 미역, 돌), 딸 금줄(손갑, 솔잎)
	처리	칠일 지나면 걷어낸다,
태 처리 하기	명칭	태, 이승가는 거
	처리	• 당기에 묻다, 물에 갖다 열다, 강에 띄우다, 강에 내비래다 • 삼일만에 햇불 놓고 태우다, 벽고래이 쥐 열다
배꼽 관리 하기		• 배꼽, 뱃총, 오지배꼽 • 뱃총 여물다, 뱃총 떨어지다 • 뱃총 당개면 안된다, 물 들어가면 안된다
출산 후 의식	명칭	삼일날, 초칠, 이칠, 삼칠, 삼칠일, 백일, 돌
	삼날 삼칠	삼신편, 삼신상
	백일	백편, 백점, 망두, 망두떡, 바람떡, 수수떡, 수구떡
	돌	돌잔치, 연필, 붓, 책, 실타래, 지다, 실지몬 명 질다

5. 신생아·임산부 관련 어휘

기타 조사 어휘는 크게 신생아 관련 어휘와 임산부 관련 어휘로 나누었다. 신생아 관련 어휘는 다시 신생아의 호칭에 관련된 어휘와 신생아 신체 관련 어휘로 하위 범주를 나누어 분류하였다.

1) 신생아 관련 어휘

신생아 관련 어휘에는 신생아의 호칭에 관한 어휘와 신생아의 신체에 관련된 어휘를 조사하였다. 신체에 관련된 어휘는 음부의 명칭과 음부의 형태에 관련된 어휘가 많이 조사되었다.

(1) 호칭

경상도에서는 ‘아이’를 ‘얼라, 아’라는 어휘로 많이 표현하였고, 여자 아이를 ‘가스나, 가시나, 딸래미’로, 남자 아이를 ‘머스마, 머시마, 머시매’ 등의 경상도 방언을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쌍둥이’를 ‘쌍디이’라 하기도 하고 ‘삼쌍둥이, 세쌍둥이’라는 어휘를 사용하기도 한다.

태이는 열 달 동안 엄마 배 속에 있다가 나와야 하지만 열 달을 채우지 못 한 아이들도 많았다. 칠삭둥이를 ‘일곱달백이’ 혹은 ‘칠부’, 팔삭둥이를 ‘여덟달백이’, ‘팔부’, 구삭둥이를 ‘아홉달백이’라 불렀다.

경상남도	쌍둥이 쌍딩이, 팔삭둥이	경상북도	쌍둥이, 삼쌍둥이, 세쌍둥이, 일곱달백이, 여덟달백이, 아홉달백이, 칠부, 팔부
------	------------------	------	---

③7

- ㄱ. 우리 또 {딸래미는}.<함안>
- ㄴ. 우리 아들 저기 우째 저 {가스나가 안되고 머스마가 되갓고}<함안>
- ㄷ. {머시매} 둘이만 보고 참 그냥 살고 있어.<함안>

- ㄹ. {얼라} 엉덩이를 막 찾아. 그래 짜매는거야.<경북>
- ㅁ. 두나 든 건 {쌍둥이고}. 시나 놓는걸 {삼쌍둥이고. 세쌍둥이}.<경북>
- ㄴ. 아홉달만 나온 거는 {아홉달백이라} 카고. 여덟달만 나온 거는 {여덟달 백이라} 카고 이라대.<경북>
- ㄷ. 그거 여덟달 노면 {팔부} 딸.<경북>
- ㅇ. {아홉달백이보다} {저저 일곱달백이}가 더 잘 살더라.<경북>
- ㅈ. 일곱달만에 난 거는 {칠부라} 그러데.<경북>

(2) 신체 관련 어휘

(가) 음부 명칭

아이의 음부는 완곡한 표현으로 돌려서 많이 이야기 하였는데 아들일 경우에는 ‘고추, 꼬치’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딸인 경우에는 ‘잠지, 짬지’라는 말을 썼는데 이 외에도 딸인 경우는 음부의 모양에 따라 ‘불알잠지, 말코잠지, 말코자지, 말코보지’라 불렀다. ‘불알잠지’는 남성의 음경이 튀어나온 것처럼 조금 불룩하게 생긴 여성의 음부를 말한다. ‘불알+잠지’의 형태인 합성어로 여성의 음부인 잠지가 남성의 것처럼 조금 불룩하게 보이는 것을 말한다. 이런 불알잠지를 가지고 있으면 동생은 아들을 낳는다고 한다. ‘말코잠지, 말코자지, 말코보지’는 같은 의미로 말의 꼬처럼 길쭉하게 생긴 여성의 음부를 빗대어 이르는 말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자지’와 ‘잠지’ 모두를 남성의 성기를 비하해 혹은 완곡하게 이르는 표현이라고 수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제보자들은 ‘잠지, 보지’는 여성의 음부를, ‘자지’는 남성의 음부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말코자지’에서는 ‘말코+자지’의 형태이지만 남성의 음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말 꼬처럼 길쭉하게 생긴 여성의 음부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런 말코잠지를 가지고 있으면 동생을 낳아도 딸을 낳는다고 한다.

경상남도	잠지, 잠지, 꼬추, 꼬치	경상북도	잠지, 찜지, 꼬추, 꼬치, 자지, 불알잠지, 말코잠지, 말코자지
------	-------------------	------	---

③⑧

- ㄱ. 아들 놓으면 {꼬추} 낳다 키는 사람도 있고 아들 낳다 키는 사람도 있
고.<경북>
 ㄴ. {꼬치가} 없지. 꼬치 안차고 나왔으니 꼬치가 없지.<경북>
 ㄷ. {불알잠지됐잖아}. 요래 동그란 게. 끝이 동글개.<경북>
 ㄹ. 말코같이 지단한 건 말코 {말코자지라}. 머 {찜지란} 소리는 어데 하나.
 옛날에 무식하면 {말코보지라} 하고.<경북>

(나) 음부 형태

음부의 형태는 주로 ‘불알잠지’와 ‘말코잠지’에 관련된 어휘이다. 불알잠지는 여성의 음부 중 살과 맞닿는 부분 끝이 동그랗게 생기고 잠지가 남성의 것처럼 조금 불룩하게(불룩하게)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는 형태를 말한다. 이와는 다르게 말코잠지는 여성의 음부와 살과 맞닿는 부분의 선이 기다랗게 쭉 이어졌다. 이 선이 말코처럼 지단하게(길게) 생겼다는 것이다.

③⑨

- ㄱ. {불알잠지됐잖아}. 요래 동그란 게. 끝이 동글개. 불알잠지라. 말코같이 지단한 건 말코 {말코자지라}. 그래. 자. 자는 자는 동그랗게 딱 꺾었다.<경북>
 ㄴ. {쭉 찢었는 거} 있고.<경북>
 ㄷ. 여기 이래 {불룩하이. 이 풀룩 튀어나왔데}.<함안>
 ㄹ. 아이래 사무 죽 {재져부고. 요래 동그롬 하이}.<경북>

2) 임신부 관련 어휘

임산부(妊産婦)는 임신한 사람을 나타내는 ‘임부(妊婦)’와 아이를 출산

한 ‘산부(産婦)’를 일컫는다. 제보자들은 임부를 지칭하는 말로 ‘임신부’라는 말을 사용하였으며 이 외에 ‘아 뻔 여자, 얼라/알라 가진 여자’ 형태로 사용하거나 ‘저 사람 아 뻔다, 얼라 가졌다’ 등의 서술형으로 풀이해 표현하였다. 산부는 ‘산모’를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였고 ‘아 난 여자, 얼라 난 여자’, ‘주어+아 났다(낳다), 주어+얼라 났다(낳다)’ 등의 형으로 사용하였다. 제보자들은 임신부라는 어휘는 알고는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 있었다.

또한 임신부에 관련된 어휘에서 아이를 못 낳는 여성과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의 명칭에 관한 것도 조사하였다. 경북에서는 아기를 못 낳는 여자를 ‘들짜’라 하였으나 경남에서는 이에 해당되는 특정 어휘는 없었고 ‘초산도 못 한다’, ‘아기 못 가진다’, ‘배태도 못 해봤다’ 등의 형태로 풀어서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는 경우를 ‘단산했다, 애기 다 낳다’라고 한다.

경상남도	초산도 못한다, 아기 못 가진다	경상북도	들짜
------	-------------------	------	----

④①

- ㄱ. {산모는} 잘 모르지. 시오마이가 하이끼네.<의령>
- ㄴ. {임신부는} 원래 그런 거 안 묵는기라.<경북>
- ㄷ. 애기 못 낳는 사람 {들짜라} 카더라.<경북>
- ㄹ. {초산도 못했다} 이래.<경북>
- ㅁ. 애기 못 낳는 부른 말도 없고, 저 사람들 애기도 못낳았다 {배 태도 못해봤다} 카는가.<의령>
- ㅂ. 그건 {단산했다고}. 단산.<경북>
- ㅅ. 안 낳는 걸 인자 {애기 다 낳다} 카지.<의령>

이상으로 신생아와 임신부에 관련된 어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신생아와 임신부 관련 어휘

구 분		조사 항목
신생아 관련 어휘	호칭	얼라, 가스나, 머스마, 브시매, 딸래미 쌍둥이, 쌍디이, 삼쌍둥이 아홉달백이, 여덟달백이, 일곱달백이, 칠부, 팔부
	신체 관련 명칭	성기 명칭 고추, 꼬치, 잠지, 불알잠지, 말코잠지, 말코자지, 말코보지
	형태	지단하다, 찢쭈하다, 쪽 찢지다, 동그랗다, 동그롭하다, 불독하다, 풀독 튀나오다
임산부 관련 어휘		들찌, 배태도 못하다, 초산도 못하다 애기 다 낳다, 단산하다, 죽은 아 낳다, 사산하다

6. 결론

지금까지 경상도 지역의 임신·출산에 관련된 어휘를 살펴보았다. 임신·출산에 관한 어휘 조사는 경상북도 영양, 봉화, 대구 제보자와 경상남도 의령, 함안, 부산 제보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내용은 임신·출산 과정, 출산 후 행위 및 의식, 신생아, 임신부 관련 어휘 등이다.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임신·출산의 과정에 관련된 어휘는 임신 과정에 관한 것과 출산 과정에 관련된 것을 나누어 정리하였다. 임신에 관련된 어휘 중에는 ‘입덧’에 관한 다양한 표현이 있었고, 출산 과정에 관해서는 아기가 나올 기미를 보이는 단계에서 아기가 나오고, 탯줄 끊고, 태가 나오는 등 출산의 단계별로 정리하였다.

출산 후에도 산모나 태아에게 건강상 필요한 행위가 있었으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출산 의식이 행해졌다. 산모에게는 아이를 낳는 것만큼 산후 조리도 중요하였으며 산후조리는 음식을 먹는 것과 편히 쉬는 것이 있었다. 하지만 산후조리도 사내아이를 낳았는지 딸을 낳았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제대로 몸 관리를 하지 못 했을 경우는 이후에 큰 고생을 한다고

믿었다. 그리고 산모는 아기의 생명과 직결된 젖 관리에 힘썼다. 신생아에게는 엄마의 젖이 돌기 시작하는 삼일 간은 약간씩 물만 먹여 뱃속에 똥인 태변을 누게 했으며, 삼일 부정이라 하여 삼일 간은 옷도 입히지 않고 씻기지도 않는 등 아이가 세상에 없는 듯 행동하여 귀신이나 사악한 기운의 영향을 피했다고 한다.

신생아와 임신부에 관련된 조사 어휘로는 신생아의 호칭, 신생아 신체 관련 어휘, 산모에 관련된 호칭 등에 관한 어휘이다. 이 중 아기의 성기에 관련한 어휘가 다양하게 나왔는데 남자 아이는 대부분 ‘고추’로 통하였으며, 여자 아이의 것은 ‘짹지’라 하였다. 또한 여자 아이의 성기는 이후에 남동생을 낳을 것인지, 여동생을 낳을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 여러 어휘를 사용하였는데 여자 아이의 성기 모양에 따라 불알잠지, 말코잠지, 말코보지, 말코자지 등의 이름이 붙었다. 이중 불알잠지는 둥그랗고 통통하게 생긴 형태로 여자 아이가 이런 성기 모양이면 후에 남동생을 낳는다고 믿었다.

경상도 지역의 임신·출산에 관한 어휘 중 기자의례, 출산 준비물, 금기, 속설 등에 관한 어휘의 비교 분석은 다음 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 국립국어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국립국어원 지역어조사추진위원회(2006), 『지역어 조사 질문지』, 국립국어원.
- 경북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1994), 『경상북도방언자료집』, 경북대출판부.
- 김계화(1999), 『임신·출산·산후조리 OK』, 진리탐구.
- 김난희(2004), 『임신&태교』, 김영사.
- 김도향(1998), 『마음으로 만나는 태교: 김도향의 태교에세이』, 프리미엄북스.
- 김열규(2006), 『한국인의 자서전』, 웅진씽크빅.
- 김용덕(1994), 『한국의 풍속사1』, 밀알, 130-175쪽.
- 김재일(1997), 『우리 민속 아흔아홉 마당1』, 한림미디어, 53-141쪽.
- 대한산부인과학회(1991), 『임신과 분만: 임신 시부터 산육기』, 한동출판사.
- 박금자(2003), 『임신과 출산의 행복어사전』, 민미디어.
- 박용수(1992), 『겨레말갈래큰사전』, 한글문화연구회 출판부.
- 박용수(1992), 『새우리말갈래사전』,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상규(2000), 『경북방언사전』, 태학사.
- 최래옥(1992), 『우리민속의 멋과 얼』, 동흥문화사.
- 최인학 외(2001), 『한국민속학 새로 읽기』, 민속원.
- 최학근(1994), 『한국방언사전』, 명문당.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9), 『한국방언자료집Ⅶ』, 신홍인쇄.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3), 『한국방언자료집Ⅷ』, 신홍인쇄.

Abstract

Vocabulary Study on 'Pregnancy·Childbirth'

- Focusing on Gyeongsang-do Region

Hong, Gi-Ok

The purpose of the present research is to investigate vocabulary on 'pregnancy·childbirth' of the Gyeongsang-do region and to systemize a vocabulary list on this. This research cataloged vocabulary on pregnancy·childbirth by collecting diverse vocabulary on pregnancy·childbirth through several informers of Gyeongsang-do. Here, vocabulary related to a process of pregnancy·childbirth, vocabulary related to behaviors and awareness after childbirth and other vocabulary related to newborn baby·pregnant women were arranged.

The problem of pregnancy·childbirth started with the beginning of the human race has long history, so it can be estimated that there would be many words and expressions related to this. Traditional life vocabulary on pregnancy·childbirth due to change of childbirth culture is also maintaining only its slender existence with the center of elder people. Accordingly, the work investigating and arranging traditional life vocabulary on pregnancy·childbirth, which is disappearing, is necessary and would be meaningful work.

Key-words : Vocabulary, Traditional Vocabulary, Pregnancy, Childbirth, Awareness, Newborn Baby, Pregnant Woman

홍기옥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주소 : (702-701)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전화번호 : 053-950-5106, 010-8161-5312

전자우편 : hongok@knu.ac.kr

이 논문은 2010년 10월 31일 투고되어
2010년 12월 14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0년 12월 15일 게재 확정됨.